

OECD 컨퍼런스 참석

- 최희선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1. 출장 개요

- (1) 출장자 : 최희선 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센터)
- (2) 출장기간 : 2012년 9월 16일(화) ~ 9월 22일(일) (5박 6일)
- (3)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스웨덴 벡커
- (4) 방문일정 :

- 9월 16일 : 인천공항 출발 스웨덴 도착
- 9월 17일 : 스웨덴 벡커대학 방문, Anxo 교수 인터뷰
- 9월 18일 : 스웨덴 출발 파리 도착
- 9월 19일 ~ 20일 : OECD 컨퍼런스 참석
- 9월 21일 : ILO 방문, 이상헌 박사 인터뷰, 파리 출발
- 9월 22일 : 인천공항 도착

2. 출장목적

- 이슈페이퍼 “지역일자리 창출에서 산학협력체제와 대학의 역할” 자료수집을 위하여 OECD 세미나 참석
- OECD Roundtable on Higher Education in Regional and City

Development "Universities for skill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growth"

○ 스웨덴 Vaxjo 대학 Anxo 교수 인터뷰

- 2012년도 기획과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제세미나(당초 기획하였으나 추후 국내세미나로 전환)의 발표자로 고려
- Anxo 교수는 20년간 노동시간 관련 많은 논문을 발표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사람이며, EU의 2007년 및 2009년 part-time work in Europe, European company survey 의 연구책임자였음.

○ 국제노동기구 (ILO) 이상헌 박사 인터뷰

- 2012년도 기획과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 노동시간 관련 Best Practice 기업 초청을 의논할 예정이었음. 이상헌 박사도 10여년 이상 노동시간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저널 및 ILO 보고서에 발표하고 있음.

3. OECD 컨퍼런스 프로그램

부록 참조

4. 결과보고

(1) OECD 컨퍼런스

OECD 컨퍼런스 (라운드 테이블) 배경

- OECD 대학교육 분과에서는 “지역 및 도시발전에 대한 고등교육의 공헌”이라는 주제로 2005년부터 20여개국의 30개 이상의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산학협력과 지역 및 도시발전에서의 대학의 역할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지역 및 도시의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고등 교육을 동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고등교육기관, 지역 및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
- 연구 목적은 대학교육이 지역 혹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지역 수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도움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 도모
 - 지역대학과 비즈니스 및 산업과 사회 파트너 간의 협력 관계를 개발, 강화
 - 지역 참여에 대한 시스템 혹은 기업, 대학, 지역사회 등등 개별 플레이어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 및 인센티브 개발
- 이번의 라운드테이블은 3차 라운드테이블에 해당하며, 3차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와 그밖에 대학 및 지역, 산학협력정책 담당자들이 옵서버가 참여하였음.
- 그동안 2005~2007년의 연구(1차 라운드테이블), 2008~2011(2차 라운드테이블) 등이 개최되었음.
- 경쟁력 있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Jaana Puukka, OECD EDU)
- 동 연구는 대학이 글로벌,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각기 혁신과 숙련, 사회·문화·환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기여하는가에 초점이 있음.
 -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지역사회 등이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이러한 전략적 목표 설정 및 실행 플랜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 지금까지의 연구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서 대

학이 혁신과 숙련, 사회·문화·환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기여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언을 제공하는데 있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우선 개별 지역에 대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혁신과 숙련, 사회·문화·환경의 관점에서 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조사 연구 진행
 - 국제적 전문가 그룹의 이 지역 방문과 조사 연구에 대한 코멘트 진행
 - OECD review report 발행 - 이 지역의 피드백 반영
 -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대학, 지역 공공기관, 지역사회에 대하여 조언 제공
-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대학이 혁신과 숙련, 사회·문화·환경의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수준:
고등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지역정책의 부조화
고등교육기관 자율성 부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지역 수준:
지역 파트너십 부재, 리더십 부재
지역내 기관별 경쟁
지역발전 전략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 대학 혹은 기관 수준:
경영능력 부족
대학의 수월성 추구 전략과 지역 참여 전략의 충돌
고등교육기관 내부 개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대학과 지식이전: OECD 지역 혁신 보고서로부터의 시사점

(Karen Maguire,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Division)

- 지역발전의 문맥에서 대학의 역할
 - OECD 지역혁신연구에 따르면, 몇몇 거대 지역 허브(big regional hubs)는 성장에 큰 기여
 - 대부분의 성장은 허브 외부에서 발생
 - 다수의 거대 도시들은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
 - “평균지역(average region)”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음.
- 숙련: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저숙련 인구 과잉 현상은 숙련인력 부족 현상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저숙련 인구는 매우 낮은 이동성을 보이고 있음.
- 혁신: 지역성장에 있어 기술 기반의 혁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 프론티어에 근접하는 지역일수록 더욱 현저
- 대학의 과도한 영향력은 경제적 이득보다 과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
 - 대학은 지역의 매우 안정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이 과대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이 지역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불충분하게 관여하는 것은 글로벌 우수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발전에 불충분하게 관여할 수 있으며, 또는 어떤 전략을 분명하게 내세우지 않는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은 항상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참여할 필요
- 폴리텍이나 공과대학 등 applied research mission을 갖는 대학들의 성과가 좋은 편이며, 따라서 다른 종류의 대학들에 대한 기대는 달라질 필요가 있음.
 - 대학의 특허가 중소기업의 혁신의 기회를 막는 경우도 있음.
- 대학 인큐베이터의 경우 연구인력만 있고 기업가는 없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음.
- OECD 지역연구에서 시사점은, 지식이전에 대한 기대는 지역 콘텍스트에 맞

아야 한다는 것임. 즉, 지역의 경장모형, 지역혁신모형, 대학유형 등등이 매치해야 한다는 것임.

- 지역의 기존 기업을 기초로한 연구 및 교과과정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음.
- 지역 산업에 대학 등 교육기관 졸업자의 공급이라는 형태의 지식이전에 있어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대학의 교과과정이 기술변화 및 산업변화에 맞게 빠르게 업데이트되지 못한다는 것
- 대학의 기술이전센터(TTO)의 질의 관점에서 볼 때, 몇몇 대학의 기술이전센터 통합이 효율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역의 기업에 대학의 박사 졸업자 및 대학신규 졸업자를 배치하는 것은 유익한 편. 물론 일부 문화적인 문맥에서 기업이 이와 같은 형태의 지식이전을 꺼릴 수도 있음.
- 요약할 때, 대학은 그 지역의 핵심 허브이며 그 지역 기업에 지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세계로 향하는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동 특허등록 데이터 성과 참조

□ 혁신과 지식이전: 고등교육기관을 이용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Susan Christopherson, Cornell University)

- 최근의 변화
 - R&D에 있어 부국과 빈국의 파트너십 모델
 - 산업간 translational research
 - advanced manufacturing 에서의 공급망(supply chain) 역량 증진
- R&D에 있어 부국과 빈국의 파트너십 모델
 - 이 모형은 아웃소싱이나 오프쇼어링을 넘어 부국과 빈국에 걸쳐 고등교육기관의 역량을 연결하는 공동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 노력으로 진화

- 예: U of Sheffield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 with the Aerospace Malaysia Innovation Centre
- 전략적 이득: 항공우주 제조업 분야에 composite materials 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의 적용
- 문제점: 대학교육 국제화 모델과 관련이 있으며, 대학교육 국제화는 각기 다른 지역적 및 문화적 프레임에서 지식습득 스타일 및 혁신 능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산업간 translational research

- 과학연구의 결과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 및 공정에 적용되어 혁신을 유도하도록 하는 접근방법
- 예: The University of Barcelona Translational Medicine Degree Programs
- 전략적 이득: 이와 같은 반복적이며 다학제적 접근방식은 연구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간프레임을 단축
- 문제점: 현재 의학 및 보건 분야에만 치우쳐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이 다른 분야에 확산될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Advanced manufacturing에서 공급망 역량 증진

- 기업은 혁신이 전통적인 R&D 센터에서만 아니라 공급망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예: 소 노라 멕시코 기술 교육 연구소
- 전략적 이득: 기술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은 공급망회사의 혁신 잠재력을 높임.

□ 대학과 지식이전: 대학 교수요원 역할계약
(F. X. G. Vidal,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 대학의 전략적 연구 계획 핵심요소

- 내부 평가: 리서치 그룹에 대하여 재정 지원 및 스태프 지원 등을 통해 경쟁적인 연구 및 내부 평가에 대한 강조. 또한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ISI 논문 발표에 기준하여 평가
- 외부평가: 개인의 연구업적에 기초하여 외부평가
- 교수요원의 역할계약 (commitment agreement) 체결

○ 교수요원의 역할계약: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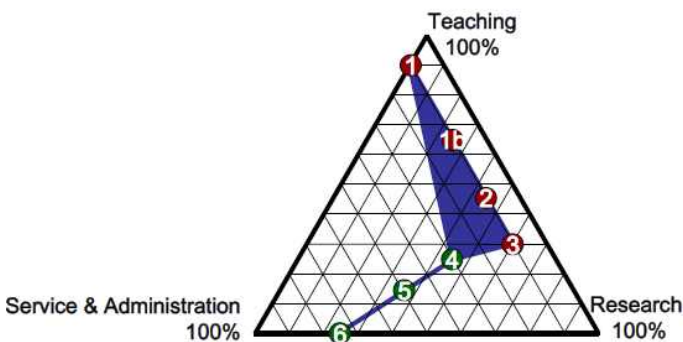
- 코로나 프로세스 이후 교수의 역할 변화: 지식 전달자로부터 지식의 생산자 및 서비스 제공자(제 3의 임무 출현)
- 교육 및 연구가 개별 임무가 아니라 집단적 임무임을 강조하고 기인, 학과,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요원 및 행정 노력 필요
- 다양한 프로파일을 갖는 교수 필요

○ 교수요원 및 연구원의 역할계약: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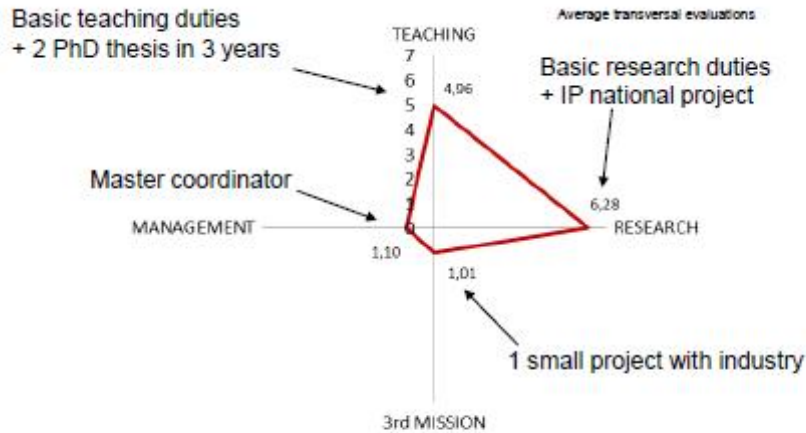
- 대학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수단
- 동 계약은 기획, 모니터링, 계약해지 등 전체 프로세스에 관여됨.
- 온라인 서류로 작성하여 모니터링이 용이

- 다섯 분야에 대해 최신 기록을 업데이트하며 영구기록으로 보존
 - (1) 교육
 - (2) 연구
 - (3) 기술 및 지식의 이전
 - (4) 교육행정 및 서비스
 - (5) 개인 개발

<그림 1> 대학 교수요원 역할계약



<그림 2> 대학 교수요원 역할계약(URU 평균)



- 교수요원 및 연구원의 역할계약을 통한 교수요원 활동에 대한 전체적 파악 및 대학 전체의 인적자원 활용 현황 파악
 - 대학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수단
 - 교수요원 개인의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과 및 학교의 성취도 상승
 - 시행 결과에 따르면, 교수요원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음.
 - 또한 대학활동에 대한 이해 및 책임을 높임.

(2) D. Anxo 교수 면담

- D. Anxo 교수는 노동시간 분야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정 및 집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기업의 관점에서는 파트타임 근로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하여 경기변동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반면, 파트타임 근로는 채용, 교육훈련,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비용에 따른 고정비용으로 전체 노동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 개인의 관점에서는 일-삶 양립 가능성을 높임.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층 근로자의 일-삶 양립 가능성을 높임. 또한 생애기간에 걸쳐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 퇴출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생애기간에 걸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기업의 관점에서 파트타임 근로의 긍정적 측면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개인의 관점에서 일-삶 양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고정비용을 높일 수 있음.
 - 즉, 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와 관련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노동체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D. Anxo 교수는 파트타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모델은 답안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 선진유럽 국가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노동시간 분포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형태의 근로유형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목표로 paid job에서의 남성의 노동시간 축소, 여성의 노동시간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사노동에 있어 남성의 노동시간 확대가 중요한데 이는 문화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도 관련이 있음.
 -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여성 파트타임 근로 활성화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우선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함.
 -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프랑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집중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성 상승 및 노동시간 단축에 성공하였음.

(3) 국제노동기구 (ILO) 이상현 박사 인터뷰

-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때, 이 두 국가는 전체 고용에서 파트타임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은 천차만별임.

- 전통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 생성을 노동시장의 작동 결과에 맡겨 두었던 영국에서조차 최근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
 - 영국 정부는 기업에게 특히 여성이 자녀 혹은 부모의 돌봄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및 역전환을 보장하도록 권고(최근의 거의 유일한 규제)
 - 따라서 영국 여성은 저임금노동에 집중되어 있어 남녀 임금격차 노동조건 격차가 매우 심하며, 최근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저임금노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도 여성 파트타임 고용 확대가 일조하였음.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확대되기 시작한 초기 시점부터 (1980년대) 일자리의 질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이 매우 높으며, 파트타임 프로페셔널도 많은 편
-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높음.
-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따라서 임금도 높일 가능성: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편은 아니다. 불필요한 조회 등 경영진의 mismanagement도 다수 발견된다. 근로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단축을 통하여 efforts을 높일 수 있다. HR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의 바게닝을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즉, 생산성 기초의 임금협상 기법을 개발한다면, 임금을 낮추지 않고도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준(예를 들어 45 -> 43 시간으로 단축과 기존 임금수준 유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노조가 합의할 수 있을 것
- 경영진의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management skill 개발 및 생산방식

및 조직 변화 개발 필요

- 노동시간 단축은 cause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납득하는 부분이지만 implementation이 힘들다. 기업 단위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
 - 2012년 현대자동차가 생산성 바게닝을 성공한 것은 매우 큰 진보로 평가할 수 있음. 현대자동차는 야간근로를 줄임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조업비용을 낮추어,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에 합의. 물론 시행은 내년 이후이며,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현대자동차의 사례가 한국의 best practice 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음.

부록: 컨퍼런스 프로그램

**OECD Roundtable on Higher Education in Regional and City Development
"Universities for skill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growth"**

19-20 September 2012
OECD, Paris (CC 9)

Preliminary Agenda

<i>Day 1 - Wednesday 19 September 2012</i>	
14.00	
<i>Registratio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istration at Reception Desk. Please bring photo identification.
14.30	
<i>Welcome & introductio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lcome & introduction Andreas SCHLEICHER, Deputy Director and Special Advisor on Education Policy to the Secretary-General, Directorate for Education • Higher education driving stronger, fairer and cleaner cities & regions Reviews of HE in Regional and City Development mobilise HEIs for local socio-economic development. Since 2005, OECD has reviewed over 30 cities and regions in 20+ countries. What are the key lessons? How do the reviews link to other OECD work on skill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Jaana PUUKKA, OECD/EDU • Comments from: Rik BLEEKER, Amsterdam Economic Board (NL) Maciej LITWIN, City of Wroclaw (PL) Michael PROCTOR, University of Arizona (US) Holly Mc KIERNAN, Lumina Foundation (US) Jocelyne GACEL AVILA, University of Guadalajara (MX) Susan CHRISTOPHERSON, Cornell University (US) Piyawat BOON-LONG, Knowledge Network Institute of Thailand (THA) Peter CRETICOS, Institute for Work and the Economy (US)
15.30	
<i>SKILLS, ENTREPRENEURSHIP AND LOCAL GROWTH Chair: Sergio ARZENI, OECD/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and Local Developmen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skills strategies What are the key issues that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designing a local skills strategy? How can they balance the nurturing and attraction of talent, the integration of disadvantaged groups into the labour force and the up-skilling of those already in employment? What can universities and other HEIs do to support this work? Jonathan BARR, OECD LEED • Comments from: Aldo BALLERINI, Bio Bio University (CL) Francesc GRAU, University Rovira i Virgili (ES) Kirsten PANTON, Microsoft

- **Role of higher education in closing regional skills gaps: Lessons from the OECD reviews of HE in regional and city development**
Higher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losing regional skill gaps, but in practice, institutional aspirations and internal reward systems, as well as government policies, conflict with this role. The session will review the findings from OECD reviews and offer suggestions to overcome barriers to regional engagement.
Aims MCGUINNESS, NCHEMS (US)
- **Comments from:**
Raed MU'ALEM, Nazareth Academic Institute (ISR)
Jakob STOLT, Aalborg University (DK)
Abdul Razak DZULKIFLI, Albukhari International University (ML)
- **OECD Reviews for Skills for Entrepreneurship**
Universities and other HEIs can nurture high growth enterprises, spin-offs and graduate start-ups. What should universities do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rt-ups, and the survival and growth rates of graduate enterprises? How can the OECD help universities and national/local authorities evaluate and improve policies, strategies, structures and practices i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David HALABISKY, OECD LEED
- **Comments from:**
Massimo GIORDANO, Regional Minister, Piedmont Region (IT)
Henry ETZKOWITZ, Stanford University (US)
Martin MAHN, Humboldt Innovation (DE)

16.30 Break

17.00

*FROM GLOBAL TO LOCAL
– INNOVATION POLICY
MIXES AND SMART
SPECIALISATION*

*Chair: Dominique
GUELLEC, OECD/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 **Management of research and innovation at institutional and policy levels - Innovation, Higher Education, Research for Development (IHERD)**
Management of research and innovation has emerged as a specialised area of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new policy and funding modalities of research and innovation that have emerged over the last 10 to 20 years. It involves attracting funding, managing funds, liaising with funding bodies, project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as well as publications, research dissemination and, in some cases, commercialisation. What are the necessary skills and knowledge requirements on policy and institutional levels for managing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current policy context?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Åsa OLSSON, OECD/STI
- **Comments from:**
John HEARN, University of Sydney (AU) and Worldwide Universities Network -
Mary WANG, University of Sydney (AU)
- **Innovation policy mixes and implications on HEIs - emerging conclusions from the OECD innovation reviews**
Gernot HUTSCHENREITER, OECD/STI
- **Comments from:**
Jason LANE, SUNY Albany (US)
Ghita BENKIRANE on behalf of AMAQUEN, Morocco
Martí PARELLADA, Fundación CYD, Spain
- **Smart Specialisation - Policy drive and HEI respons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mart Specialisation Strategies. Smart Specialisation has emerged as a new approach to industrial and innovation policy to improve the allocation of public investment in R&D and innovation related investments, including human capital and skills. What can HEIs do to support the policy strategy process? What kind of policy mix is needed to align research, industrial, innovation and educational priorities?
Inmaculada PERIANEZ-FORTE, OECD/STI
- **Comments from:**
John EDWARDS, European Commission
John GODDARD,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UK)

18.00 End of Day 1

19.00

Dinner (self financed)

- **Bistro de la Murette, 10 Chaussée de la Murette, 75116 Paris**

9.30

**UNIVERSITIES AND
KNOWLEDGE TRANSFER**

Chair: Richard YELLAND,
OECD/EDU

- **Universities and knowledge transfer: Insights from the OECD Regional Innovation Reviews**
Karen MAGUIRE, OECD/GOV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Comments from:**
Robert NACHTMANN, University of Texas, El Paso (US)
Gonzalo RODRIGUEZ-VILLANUEVA, Instituto Tecnológico de Sonora (MX)
Lidia BORRELL-DAMIAN,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BEL)
- **Innovation and knowledge transfer: Mobilising HEIs for business creation and jobs**
HEIs' tech transfer may generate saleable intellectual property and start-ups but rarely enterprises that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What does the experience from the US, Mexico, Spain and Italy teach us?
Susan CHRISTOPHERSON, Cornell University (US)
- **Comments from:**
Roy GREE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S)
Christophe GUY, Ecole Polytechnique de Montréal (CA)
Michel MUDRY, Conference of Directors of French Engineering Schools (FR)
- **Universities and Triple Helix collaboration**
Universities can play a key role in Triple Helix co-operation, if organisation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s promote their active involvement. What can we learn from Sweden and other Nordic countries?
Bjorn T. ASHEIM, CIRCLE (Centr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Competence in Learning Economy), Lund University (SE)
- **Comments from:**
Martina BECHTER, Leuphana University of Luneburg (DE)
Steve CANNON, University of Aberdeen (UK)

10.30 Break

11.00

**MOBILISING
UNIVERSITIES FOR
KNOWLEDGE TRANSFER**

- **Incentives, indicators and evaluation**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HEFCE) has a long experience in supporting universities' industry collabor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 HEIF provides incentives for universities to transfer knowledge and improve products, goods and services. What can we learn from the UK experience?
Jenni CHAMBERS, HEFCE (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ents from: Baroness Sal BRINTON (UK) Isak FROUMIN, Higher School of Economic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RUS) Thandwa MTHEMBU, Central University of Technology (SA) Mobilising university staff in the University Rovira i Virgili – What works in practice? University Rovira i Virgili in Tarragona has a broad outreach strategy which involves industry engagement, skills development and cultural outreach. How does the university encourage, measure and reward staff involvement in these activities in the Spanish university context? Francesc GRAU, University Rovira i Virgili (ES) Comments from: Leandro TESSLER, UNICAMP (BRA) Linda ROSENMAN, Victoria University (AUS) Mainstreaming university engagement – practical tools to support cultural change Universities need practical tools to embed public engagement in research and learning, and to move engagement from the periphery to the core of their activities. The EDGE Toolkit, developed by the National Coordinating Centre for Public Engagement, offers one solution. It enables universities to assess their institutional support for public engagement and helps them to develop an effective public engagement strategy. Paul MANNERS,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UK)
<p>12.00 <i>Wrap up of the meeting</i> Jaana PUURKA OECD/ED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inal comments from: Mary-Louise KEARNEY,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UK) Michael THOMAS, New England Board of Higher Education (US) Andy WESTWOOD, GuildHE (UK)
<p><i>13.00 Meeting Closes</i></p>	